

정영호

전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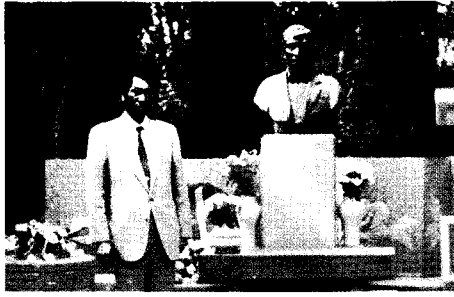
오직 공평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변인들로부터 공직자의 표상으로 인정받아 왔던 木齊 鄭永浩(69) 전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장, 일찍이 농약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오늘날 선진국 못지않은 농약안전성 체계를 구축해 낸 선구자다. “부재가위(不在其位)하면 불모기정(不謨其政)하라”는 공자의 말씀은 그가 옆에 두고 있는 인생 나침반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란다. 어찌 보면 작물보호제의 순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나 할까? 최근 서예에 심취중인 鄭 부장은 지난봄 경기도전에서 입선하는 등 일평생 과학자로서의 정교하고 세밀한 삶이 서예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도전과 여유로움이 흠뻑 배어있는 鄭 부장을 한국농업대학 교정에서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침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하신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퇴직 후의 일상은 어떠하시며 주로 무슨 일로 소일 하시는지요?

35년간의 농촌진흥청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후 한국농업대학에서 3년간 초빙교수로 봉직하다가 한국과학재단의 도움으로 3년간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생활을 가져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공직을 퇴임한 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신수양을 위하여 서예에 심취하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CDEX회의 참석(좌)
헤이그 일성 이준열사 묘적앞(우)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혼란 야기”

평소 성품이 격이 없고 소탈하시며 청렴결백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계십니다. 만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신다면?

일생의 삶을 회고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생을 살아오면서 풍요로운 생활은 못하였으나 생의 대부분을 연구직에서, 그것도 내가 하고 싶었던 농업공해에 대한 연구를 한눈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약안전성과장, 작물보호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농약업계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셨는데 재임시 특 별히 강조하신 복지침이 있으시다면?

공직자는 업무처리에 있어 항상 객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수행할 때에는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객관적 당위성을 따져서

정부·업계·농업인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약관리제도의 산증인으로 재임시를 회고하신다면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농약등록과정에서 외국의 안전성 시험성적으로 심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국내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불평이 많았습디만, 환경조건이 다른 외국 시험성적을 국내에 그대로 인정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고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국 이 제도 도입후 국내 농약업계에서의 농약안전성연구가 활발해졌고 안전성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초 농약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특히 소비자단체 및 언론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에피소드나 당시를 회고하신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적지 않았습디만, 지금은 모두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농약안전성은 소비자·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9년 자몽사건은 잊을



작물보호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캠프파이어 장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의 보도자세나 언론의 비과학적 기사, 기사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비판 능력 부족, 수출국에서의 신속한 대처 등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정신적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산업단지 내지 도로 등의 용도로 계속 줄어 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의 등장 등으로 식량 자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을 높여야 하며 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작물보호제는 다수확 종자의 개발과 함께 고투입 정밀농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농업자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줄곧 농산물 중 잔류농약만을 떠올 리는데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

과 관련하여 잔류농약을 떠올리는 것은 그만큼 농약안전성의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굳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한다면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한 농약이 안전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여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책을 접하시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과 농약’지의 독자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잡지를 읽은 독자들이 잡지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웃(농업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Y



미시간 대학 잔류연구소 방문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UNIDO관련단체 협의회 참석

국내 농약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국내 농약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진국의 농약산업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약산업은 계절산업으로 외국과 같이 종자사업 등과 같은 관련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농약회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물농약 개발에도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찍이 여러 매체를 통해 식량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시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독려하셨는데 먹거리 생산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고 있는 작물보호 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해주시지요.

식량자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은 반드시 자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농경지